

국내 대우버스

저상형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2010년 5월 13일)

대우버스는 한국기계연구원 및 정유업계와 공동으로 올해 5월 서울 롯데호텔에서 '클린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열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에 8대를 우선 보급하기로 하였다.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한 천연가스(CNG) 버스 대비 연료 효율과 이산화탄소 저감 면에서 각각 40%, 20% 가량 개선될 예정이다. 금번 개발될 버스는 내년 1월 인천·부산·대구·대전 등 4개 광역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6월 과천과 여수에서도 행사용 차량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2010 부산 국제모터쇼 '대우버스' 참가(2010년 4월 29일~5월 9일)

2010 부산 국제모터쇼는 '푸른 미래를 향한 자동차의 꿈(Drive green, Live clean)'이라는 주제로 4월 29일 프레스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1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5월 9일 폐막하였다. 총 관람객 100만 명이 방문한 금번 모터쇼에 대우버스는 원년부터 4번째로 참석하였고, 55년 대한민국 버스산업과 함께한 대우버스는 7개 계열 해외공장을 거느린 글로벌화 된 모습을 일반인에게 홍보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리즈 한국형 하이브리드 저상 시내버스, 국토 해양부의 저상버스 표준 모델 기준과 유로 5 배기기준을 만족하는 신형 표준저상 버스(BS110CN)을 선보여 많은 관람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국내 대우버스

울산공장 통합 이전 완료(2010년 4월 16일)

2010년 4월, 대우버스는 부산공장을 울산공장으로 생산 설비 이전 및 인력 통합 작업을 완료하였다. 통합 울산공장은 기존 1개 생산라인에서 신규 2개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총 3개의 생산라인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에 있다. 대우버스의 울산통합에 따라 협력업체의 이전도 탄력을 받고 있어 현재 협력업체 총 180여개 중 52개가 울산 이전이 추진 중이다. 이로써, 대우버스는 통합 울산공장에서 연간 10,000여대의 버스를 생산해 수출까지 하게 되며, 국내 뿐만 아니라 향후 글로벌 생산의 메카 역할을 할 것이다.



온라인 전기 버스 개발(2010년 3월)

대우버스가 카이스트(KAIST), 현대중공업과 함께 개발하는 온라인 전기 버스가 이르면 내년 말에 서울 시내에 첫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전기 버스는 배터리에 의존하는 기존의 전기자동차와는 다르게 차량에 장착된 교효율 집전 장치를 통하여 도로에 설치된 급전 장치로부터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 받아 운행하며, 차량의 배터리는 급전이 불가능한 비상시에만 사용하므로 기존 전기버스 배터리 용량의 약 1/5 수준으로 축소된 신개념의 친환경 전기버스이다.



해외 대우버스

대만법인, 시장 1위를 향해 질주(2010년 5월)

대우버스가 지난 2003년 설립된 대만법인이 합자회사 출범 7년만에 대만 시장 1위를 넘보고 있다. 년간 2,200대의 대형버스가 판매되는 시장에서 대우버스 대만법인은 일본 히노, 미쓰비시, 이스즈가 석권하고 있던 시내 버스시장과 유럽의 볼보, 스카니아가 지배하던 관광버스 시장 양쪽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 왔다. 대만의 대우버스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고속/관광 버스시장에서 유럽산 경쟁자들을 이미 물리쳤고, 2007년부터는 최신 초저상 버스를 수도 타이페이의 최대 운수업체인 수도객운에 독점 공급하면서 시내버스 시장에서도 일본 경쟁사들을 꺾으며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2005년 전체 시장의 3%에 불과하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2009년) 25%로 상승하여 일본 미쓰비시(30%)를 바짝 추격하였으며, 마침내 올해에는 시장 점유율 1위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법인, 대우버스의 중남미 거점, 압도적 1위(2010년 5월)

대우버스 코스타리카 법인은 1995년 6월 영안모자가 벤츠 버스를 생산하던 현지 바디빌더 마우코를 인수함으로써 사업이 시작된 후, 영안모자의 대우버스 인수와 함께 2004년 1월에 대우버스에 합병되었다. 이후 대우버스 샤시를 도입, 생산하면서 현지 도로 여건에 맞는 제품 생산 및 세심한 A/S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코스타리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갔다. 지난 해 30.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최대 경쟁자인 벤츠(35%)에 근접하였고, 2010년 들어 벤츠를 물리치고 49%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 코스타리카 1위의 버스 생산업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해외 대우버스

상해법인, 상해 엑스포 버스 선정(2010년 5월)

대우버스 중국 상해법인이 생산한 버스가 올해 2010 상해 엑스포 차량으로 선정, 엑스포 직행 노선 등으로 1,000대를 공급하여 상해 엑스포를 찾는 전세계 각국 관람객들에게 그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세계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 받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우 상해법인은 상해 시내 버스의 주요 공급업체로써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상해 시내버스의 절반 가량인 약 3,000대를 공급하였다.



베트남법인, 저상형 시내버스 BC212MA 101대 하노이시 공급(2010년 1월)

베트남 대우버스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에 저상형 시내버스 BC212MA 101대를 공급하였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9대중 1대는 베트남 대우버스가 제작한 신형 차량이다. 금번 공급되는 BC212MA 시내버스는 하노이시가 최초로 하노이 시내에 도입한 대형 및 3도어 대형버스로 승차 인원이 80명으로 기존형보다 도어 폭이 30cm나 넓은 '3 더블 글라이딩 도어'의 저상 시내버스용으로 승강구 높이가 낮아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승.하차가 편리하며, 에어 스프링을 장착하였다.



해외 대우버스

상해법인, 하이데커 BH212 출시(2010년 1월)

대우버스 상해 법인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 모델을 올해 3월 적격 출시하였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하이데커 모델인 BH212은 FRP 바디 채용으로 차량 중량을 대폭 경감시켜 연비가 뛰어나며 앞으로 상해 대우버스의 주력 수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 다시 도약하는 대우버스(2010년 5월)

대우버스는 2005년 철수했던 필리핀 시장을 2008년에 다시 진출하여 현재까지 약 400여대를 시내외버스를 공급하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된 사양과 강화된 품질 관리 절차를 통해 대우버스의 명성을 회복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시내외버스 약 200여대를 필리핀에 공급하면서 최대 경쟁자인 일본의 낫산, 히노의 필리핀 시장 점유율(각 30%)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시내버스 1,000여대 공급(2009년 12월)

대우버스는 아제르바이잔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쿠시내 대중 교통 강화정책에 부응해, 2007년에 이어 2009년 9월에 추가 800대 시내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계약 체결로 대우버스는 1,800대의 시내버스를 아제르바이잔 교통부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아제르바이잔 교통부가 대우버스의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한 결과이다.



해외 대우버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백학마을 설립(2010년 2월)

2010년 2월, 대우버스의 후원으로 에티오피아에 백학마을 OBS 김혜자 센터를 설립하였다. 백학마을은 대우버스 모기업인 영안 모자가 건립하고 운영중인 양로원, 고아원, 장애인 보호 시설들이 모여 이루어진 일종의 복지 마을이다. 금번 복지마을 설립은 오랜 기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돌보아온 배우 김혜자씨가 OBS 경인 TV의 개국 프로그램 '희망을 찾아서'의 진행을 맡으면서 김혜자씨의 봉사정신을 OBS, 영안모자 그리고 대우버스가 후원하여 이루어졌다.

